

◆第11課 じゅんばんを言うー温泉ー

제 11 과 순서를 말하다 -온천-

【한국어】

아버지 : 어! 탁구가 있네. 에린, 탁구 쳐 본 적 있니?

에린 : 네.

아버지 : 그럼, 잠깐 쳐 볼까?

엄마 : 지금 하게? 목욕하고 나서 하지.

아버지 : 그러면 또 땀 흘리잖아.

아버지 : 땀 흘리고 나서 온천이지.

엄마 : 한 번 말을 꺼내면 막무가내라니까.

엄마 : 미안하다, 에린 조금만 상대해 드려.

에린 : 네.

에린 :

엄마 : 에린이 이겼다!

아버지 : 그럼 목욕하러 갈까?

엄마 : 아휴! 정말 자기 맘대로야! 에린, 가자.

에린 : 네.

